한국산업경제저널 제2권 제2호 2010년 8월(pp. 81～101)

중국의 대 ASEAN 투자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최백렬** · 孟慶雷***

요 약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30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중국기업들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쩌우추취(走出去)"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ASEAN 각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결과 시장규모변수 중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는 현지국의 1인당 소득규모가 크고 또한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율변수와 인플레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과 같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시기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에는 무역보완관계에 의해 투자가 영향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관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장규모 변수 중 외환위기 전에는 인구 수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나 나타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역사기 길지 않고 또한 투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투자입지의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전통적 변수인 정책적 변수, 사회하부구조 변수, 문화적 변수 등의 자료가 입수 불가능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중국,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요인, ASEAN

* 논문접수일 2010년 7월 20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6일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산업경제저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제1저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brchoi@jbnu.ac.kr)
***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myhg007@hanmail.net)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Ⅰ. 서 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30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특히 1992년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여 국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생존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즉,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세계적인 통상압력,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경쟁과 자원낭비, 외부자본에 의한 성장의 한계,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 기업 간 경쟁심화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에 의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 거세지고 있다. 적정량의 외환보유고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지만, 과도한 외환보유는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입장려/유출제한”에서 “유입/유출 균형” 즉,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가속화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국가적 전략의 전환에 따라 "쩌우추취(走出去)“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경제의 고도발전, 중국 내 경쟁의 격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변화 등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필연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이웃국가이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이상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11월 "ASEAN+1" 정상회의에서 10년 이내에 ASEAN과 중국 간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과 ASEAN 국가 간의 무역은 크게 발전하여 자유무역체결을 위한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ASEAN은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과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의 ASEAN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ASEAN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언어, 문화, 종교, 생활양식, 기업경영방식 등에 있어서 매유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ASEAN 지역에는 중국의 화교가 가장 많이 집중[1]되어 있는 곳으로서 현지시장 진입에 따른 해외비

1) 중국의 해외 화교/화인은 전 세계에 약 3천373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ASEAN 10개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2천526만 명으로 전 세계 화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ASEAN 10개국의 경우 경제규모, 경제발전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노동생산성, 천연자원보유량, 경제정책, 사회전통, 정치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ASEAN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투자에 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중국기업의 ASEAN지역에 대한 투자에서 투자입지 선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지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현황을 보면 초기 투자기업의 경우 지역적 우위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맹목적인 투자, 모방투자가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투자 수익을 못 올리는 기업이 다수이고, 심지어 투자 실패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현황과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행하여 학술적 의의를 찾고 동시에 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탐색하여 추후 투자의 입지선택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투자 입지결정에 관한 기존 문헌 연구

해외직접투자의 입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생산요소, 시장접근성, 시장규모 등이 있으며, 또한 자본, 노동, 천연자원, 기술력, 사회하부구조 등 경제적 환경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전성,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투자인센티브 등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업적 환경 등도 중요하게 작한다.[2)]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분석을 위해 경제통합체인 유럽지역과 ASEAN 그리고 국토가 지리적으로 방대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정리하였다.

경제통합체에 대한 투자 입지결정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Scaperlanda & Mauer(1969)의 연구는 미국 기업들의 유럽지역(ECC)에 대한 투자 동기를 1952년-1966년 기간 동안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시장규모, 경제성장, 관세차별 등 세 가지의 요소가 투자입지를 선택하는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시장규모가 투자입지 선택에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시장성장률과 관세차별은 투자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Culem(1988)의 연구는 1969년~1982년 기간 동안 유럽에 투자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투자대상국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미국과 유럽기업들을 모두 포함한 자료에서는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 시장성장률, 노동비용 등이 투자국선정에

2) 구이현, 한국과 대만의 대 중국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p.5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규모는 규모의 경제성, 시장성장률은 미래의 잠재적 수익성, 낮은 노동비용이 투자입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기업들만 포함한 자료에서는 무역장벽, 과거의 수출실적, 저렴한 노동비용 등이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으나 실질 GNP로 측정한 시장규모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국토가 방대하고 선진국인 미국에서의 투자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서 Haigh(1990)의 연구는 미국에 투자한 유럽, 일본,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입지선정 결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거대한 시장과 정치적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에서 투자지역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요 소비시장과의 인접성 및 낮은 노조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의 편이성, 투자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노력도 투자결정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 수준과 실업률과 같은 노동 관련변수는 중요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wamidass(1990)의 연구는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공장설립 입지를 선택할 경우 특정 주(州)의 어떠한 요소들을 주로 고려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주의 시장규모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반면에 노동비용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노동 관련 변수들은 특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제조업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각 주의 실업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규모가 크지만 개도국인 중국에서의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陳建勛(1994)의 연구는 1987년 - 1991년 기간 동안 중국의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시장규모, 임금, 부존자원, 철도 길이, R&D 투자비용 등 다섯 개 설명변수에 대해 조건부 logit모델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임금의 차이는 투자 입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철도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잠재력의 경우 중부지역에서 중요한 입지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魯明泓(1997)의 연구는 1988년-1995년 기간 동안 중국의 29개 성・시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GDP, 1인당 GDP, 시장경제발전정도, 제3차 산업 발전수준, 도시화 수준, 임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정책 및 수출입 규모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정책은 외국인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고, 임금과 국유기업의 공업생산액 비중은 외국인투자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adman & Sun(1997)의 연구는 중국 대륙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GNP, 임금, 문맹률, 사회하부구조, 지리적 거리 등의 변수 등을 이용하여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GNP와 지리적 거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사회하부구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문맹률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과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지역 간의 임금차이는 작고 노동력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Sun, Tong & Yu(2002)의 연구는 1986년 -1998년 기간 동안 30개 성(省)에 대한 투자에서 동태적으로 투자입지 결정요인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태적으로 투자입지 결정요인이 변화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의 분석결과는 기존 외국인투자가 많은 곳에는 신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투자환경 개선과 유치정책을 통한 유인책이 없다면 다국적기업들은 경쟁자가 적은 지역에 투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徐康宁 & 王劍(2002)의 연구는 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이론모델에서 이용한 입지 결정요인 외에 정책요소와 환율요소를 포함하는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정모델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중국시장의 수요변화, 정책개방성, 자본축적량과 환율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1983년 - 2000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중국과 미국 간의 임금의 차이가 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이론모델에서 나타내는 영향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자본과 기술 집약형 산업에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국내수요 변화와 정책변화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고도발전과 환율제도 개혁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병섭&권종욱(2005)연구는 1990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에 대한 조건부 logit모델을 이용한 연구 분석결과 시장규모가 크고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지역,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지역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태적 변화과정의 분석결과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노동비용, 문화적 유사성은 영향력이 감소하고, 시장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향력이 강화되는, 반면 섬유의복의 경우에는 노동비용과 문화적 요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ang & Lee(2007)의 연구는 1988년-2002년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조건부 logit모델을 이용하여 각 성별 1인당 소득, 관리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 노동자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인구 당 대졸자 비율, 총 철로길이, 경제특구 수, 무역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경우 대중국 투자입지 분석결과 평균임금 수준, 대졸자 비율, 철로길이의 변수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고, 1인당 소득, 경제특구 수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연구논문은 많지 않다. 朱艷(2008)의 연구는 계층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국기업의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천연자원관련 기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천연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투자하였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노동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건설관련 기업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약한 국가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기업들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과학기술수준이 비교적 발달한 국가에 투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arimi, Mohammad Sharif, et. al.,(2009)의 연구는 ASEAN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0개의 요인(1인당 GDP, 지난 15년 동안의 GDP성장률,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 비중, 1,000당 전화회선, 1인당 전력량, 지난 10년 동안 FDI 평균 유입량, 인적자원개발지수, 환경 지속가능 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총체적인 경제와 정치 안정성, 고등교육 수준)에 대한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3]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SEAN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일부국가의 경우 투자유치 실적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TOPSIS방법을 이용한 10개의 지표에 의거하여 아세안국가의 순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제1위를 차지하고 말레이시아는 제2위를 차지하고 태국은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싱가포르가 제1위의 실적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투자환경이 매우 좋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Ⅲ. 중국의 대 ASEAN 직접투자 현황

1. 연도별 투자 현황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이 확대 실시된 1992년 이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증대와 동시에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일부 기업의 외화도피 차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제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국제적

3) TOPISIS 분석방법은 Hwang & Yoon(1981)에 의해 제기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이상적인 해(Ideal Solution)와 가장 가깝고 그 반대의 해(Negative Ideal Solution)와는 가장 거리가 있는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인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에 의해 투자심사가 강화되어 투자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 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WTO가입에 따른 走出去 추세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이다. 특히 홍콩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도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기업과의 연계를 위한 투자로 보여 진다. 그리고 ASEAN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도 상당규모 차지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중국 기업들이 중국과 ASEAN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3년 중국의 대 ASEAN 투자금액이 1,867만 달러를 승인하였고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로 투자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2000년 허가기준 투자금액이 10,855만 달러로 전년대비 478%나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 말까지 중국기업의 대 ASEAN 투자항목은 740개이고 총투자금액이 65,500만 달러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총액의 7.7%를 차지하였다. 2002년 말 기준 누적투자규모는 71,613만 달러에 달하였다.[4)]

2003년의 경우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71.5% 증가하여 22,492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투자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3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7년 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말까지의 누적 투자금액은 447,72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개별 투자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ASEAN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 경제구조, 부존자원의 차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 분포가 불균형하다.

2002년 말까지의 누적투자규모로 살펴볼 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투자가 많았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에는 태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이한 사항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의 싱가포르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 금융, 보험, 항공, 해운, 무역관련 서비스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우에는 가공무역과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 결과이다.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횡단철도, 수력발전 시설 등 대규모 원조형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부문에서 의류, 방직 및 가전업의 조립가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4) 中國商務部 國別貿易投資環境報告, 각년호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TCL 등 제조기업의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 중국기업의 대 ASEAN 투자현황

단위 : 만US$

국 가	2002년 누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년 누계	
	누적 총액	비 중						누적 총액	비 중
캄보디아	12,503	17.5	3,337	8,040	44,200	44,800	6,600	119,480	26.7
인도네시아	6,495	9.1	10,312	2,645	3,043	3,588	8,126	34,209	7.6
라오스	3,663	5.1	123	1,022	447	4,352	4,993	14,600	3.3
말레이시아	3,569	5.0	318	708	1,585	1,783	12,190	20,153	4.5
미얀마	6,614	9.2	0	1,228	1,511	1,843	2,228	13,424	3.0
필리핀	1,591	2.2	50	54	163	286	349	2,493	0.6
싱가포르	7,165	10.0	2,622	1,745	27,743	46,097	59,758	145,130	32.4
태국	21,471	30.0	4,913	2,801	7,217	955	1,880	39,237	8.8
베트남	8,497	11.9	817	1,990	5,522	4,879	37,295	59,000	13.2
브루나이	45	0.1	—	—	—	—	—	45	0.01
ASEAN 계	71,613	100	22,492	20,233	91,431	108,583	133,419	447,726	100
전년대비 증가율			71.5%	△10.1%	351.9%	18.8%	22.9%		
중국대외 투자총액	3,036,757		285,465	549,799	1,226,117	1,763,397	2,483,829	10,119,060	
ASEAN 투자비중	2.36%		7.88%	3.68%	7.46%	6.16%	5.37%	4.42%	

자료： 中国商务年鉴（中国对外经济贸易年鉴）； 中国商务部资料。

주 :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는 허가기준, 중국의 대외투자 총액은 실행기준

2. 산업(업종별) 투자현황

2007년 말 누적투자 기준 중국의 대 ASEAN 투자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23.5%가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투자에서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대한 투자이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다음으로 금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도소매업, 창고 및 물류업은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 및 무역중심지에 대한 투자이다. 건설업의 경우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주로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대 ASEAN 투자의 형식에 있어서도 신설투자뿐만 아니라 M&A형 투자, 그리고 기술투자 및 BT(Build-Transfer) 방식 등 투자의 형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임가공 무역형태 및 가전산업의 경우 현지 조립가공형태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표 2> 2007년 말 누계 중국 대 ASEAN 산업(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

제조업	금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교통운수창고업	전력가스상수도	광산업	농임목어업	전문기술서비스업	기타
23.5	17.8	15.2	11.3	7.8	6.4	5.3	5.0	3.7	2.5	1.5

자료원 : 2007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Ⅳ. 실증분석

1. 가설의 설정

기존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지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국의 거시경제변수 요인, 정부정책 요인, 사회하부구조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수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1) 무역과의 보완성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연관성은 Robert A. Mundell(1957)의 선구적 연구에서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는 헥셔-오린 정리의 제2명제에서 상품교역이 요소가격을 균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소의 이동은 상품가격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상품교역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는 보완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OECD(1996)의 연구결과 미국과 프랑스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투자는 대체로 무역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유재원(1996)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체적으로 수출 및 수입을 둘 다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SEAN과 중국 간에는 경제적 보완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중국은 판매시장이나 조달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과의 무역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2) 현지국의 시장규모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크다면 시장기회의 확대로 인해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현지시장 지향형 투자의 경우 현지시장 규모의 증대는 현지판매 증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가 촉진된다.

현지시장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여러 변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Woodward & Rolfe(1993)의 연구는 투자 초기 단계에 있어 시장의 크기가 잠재력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규모변수로 1인당 GDP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장규모변수로 지역의 총인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Bagchi-Sen & Wheeler(1989)는 인구수를 현지시장 규모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기업인 중국기업의 경우 같은 개도국인 ASEAN 투자의 경우 시장지향형 투자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의 1인당 GDP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가설 2b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의 인구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5) 미국의 경우 제조업체가 1달러 해외투자하는 경우 수출이 1.6$ 증가하고, 수입은 3.9$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기는 하지만 무역과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1996), The Link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 Empirical Evidence for US and French Industries(1984-1994), DSTI/EAS/IND/WP9, 1996.5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3) 현지국의 물가수준

현지국의 물가상승은 투자입지 결정에 있어서 비교열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인플레는 현지에서의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또 특정국가의 경제적 안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 나라의 경제적 안정성은 사회의 총공급과 총수요 사이의 균형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위오기&어윤대(1990)의 연구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현지국인 한국의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Manop Udomkerdmongkol,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대리변수로 인플레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의 인플레율과 부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4) 환율

환률 변수의 경우 현지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높은 자본화율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부터의 현지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수출의 대체수단으로 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환율과의 관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Aliber(1970)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강세 통화국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약세 통화국 기업보다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고 또한 투자기업은 높은 자본화율을 달성할 수 있통화국 기업강세 통화국에서 약세 통화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ushman(1988)의 연구에서는 현지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수출을 통해 현지시장 기업공급하는 경우, 해외생산-본국 역수출하는 경우, 현지국과 급하는본국 모두 생산하여 hm컵역의 초과수요를 수입하는 경우에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화국 기업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본 연구에는 현지국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국 화폐기준 달러표시환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국 화폐기준 달러표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부

6) 그러나 위오기&어윤대(1990)의 연구에서는 본국의 중간재를 현지자회사가 수입하여 현지 생산에 투입하는 수직적 전방통합의 경우에는 현지국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현지 자회사의 수입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5) 개방정도

한 나라의 경제개방의 정도는 해당 국가가 국제 분업과 국제시장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시장이 국제시장과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외국인직접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개방도는 현지 시장환경이 국제표준에 더 가깝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ang & Lee(2007)의 연구는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에서 현지시장의 개방정도변수로 각 성의 수출입 총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劉建光(2007)의 연구에서는 GDP대비 FDI 비중을 그 나라의 대외 개방정도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각 국의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을 대외개방 수준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대외개방 정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1992년-2007년 기간동안 중국기업의 대 ASEAN 각국에 대한 연말 누적 직접투자잔액(허가기준)을 이용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사는 비교적 짧고 2002년 이후 최근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투자규모가 작으며 지속적인 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다.[7] 그리고 브루나이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매우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 9개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국대외경제통계연감>[8] 각 년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양국 간 투자와 무역과의 보완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과 ASEAN 각 국과의 연도별 무역총액을 이용하였고 사장규모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연도별 1인당 GDP와 인구수를 이용하였고 각각의 변수는 IMF 통계자료에서 입수하였다. ASEAN 각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물가수준에 대한 투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율은 World

7) 만일 연간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한다면 투자의 우연성으로 인하여 통계의 유의성이 낮아지며 투자활동과 경제지표간의 관계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다.

8) 2003年 이전의 통계자료는 <중국상무연감> 각 년호 자료 참조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Bank 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환율변수의 경우 ASEAN 각국 화폐기준 달러표시 연평균 환율을 ADB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제의 개방정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SEAN 각국의 연도별 FDI/GDP 변수를 사용하였고 각국의 GDP 통계는 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국의 FDI 총액은 년간 외국인순투자유입금액을 UNCTAD 자료로부터 입수하였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기대부호

변수	정의	출처	기대부호
ODI	중국기업의 대아세안 연도별 국가별 투자 누적잔액(허가기준)	중국대외경제통계연감	
TRADE	중국과 아세안각국과의 연도별 무역총액	IMF	+
PGDP	아세안 국가별 연도별 1인당 GDP	IMF	+
P	아세안 국가별 연도별 인구수	IMF	+
INF	경제적 안정성 및 물가수준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율	World Bank	-
ER	아세안 각국 화폐기준 달러표시 년평균 환율	ADB	-
FDI/GDP	아세안 각국의 연도별 GDP대비 순FDI유입금액	World Bank UNCTAD	+

3. 모형의 설정 및 분석방법

중국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mathrm{Ln}(ODI_{xt}) = \alpha_0 + \alpha_1 \mathrm{Ln}(TRADE_{xt}) + \alpha_2 \mathrm{Ln}(PGDP_{xt}) + \alpha_3 \mathrm{Ln}(P_{xt}) \\ + \alpha_4 \mathrm{Ln}(ER_{xt}) + \alpha_5 INF_{xt} + \alpha_6 FDI/GDP_{xt} + e_0\end{aligned}$$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대 ASEAN 직접투자 입지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Ln은 로그를 취한 값을 의미하며 패널분석이기 때문이 x는 각국을 의미하고 t는 당기의 값을 이용하였다. 패널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단순한 시계열 자료나 횡단면 자료에 비해 관찰 자료의 수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는 모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정교한 모형의 설정 및 검정이 가능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자유도 및 추정치의 편의를 용이하게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패널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모형 선택에 관련된 것이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다. 패널모형은 혼합효과추정모형,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est와 Hausman 검증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은 E-View 6.0을 이용하였다.

4. 실증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표 4> 변수들의 기초통계

Variable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logodi	144	6.2146	16.4906	12.5046	1.8824
logtrade	144	11.7714	20.5955	16.9246	2.1086
logpgdp	144	-0.4556	5.8967	2.3616	1.5141
logp	144	8.0805	12.3234	10.3143	1.2696
loger	144	-9.6882	-0.3365	-5.0006	3.4124
fdi/gdp	144	-2.7489	20.0675	4.5512	4.1499
inf	144	-5.2900	127.9700	10.0235	15.4143

<표 5> 변수들의 상관관계

	logpgdp	logp	loger	fdi/gdp	inf
logtrade	0.657** 0.000	0.343** 0.000	0.388** 0.000	0.152 0.070	-0.332** 0.000
logpgdp		-0.294** 0.000	0.552** 0.000	0.475** 0.000	-0.412** 0.000
logp			-0.243** 0.003	-0.542** 0.000	0.054 0.520
loger				0.326** 0.000	-0.176* 0.035
fdi/gdp					-0.168* 0.04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ASEAN 국가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국의 1992년-2007년 기간 동안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고 독립변수들의 상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통계량을 이용한 상관관계는 <표 5>과 같다.

2) 분석 결과

1992~2007년 기간 동안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입지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1은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상관성을 검증한 결과 DW 통계값이 0.37로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R(1) 오차항을 전제하고 분석한 결과를 모형2에 제시하였다.

투자와 무역과의 보완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았다. 시장규모변수 중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의 투자입지 결정에 있어서 현지국의 1인당 소득규모가 크고 또한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율변수와 인플레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과 같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즉,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는 현지국의 물가상승과 환율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지국의 물가상승은 투자입지의 비교열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중국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DI/GDP변수는 통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6> 분석결과 (1992-2007)

Variable	모형1	모형2
	Fixed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LogTrade	0.181723 (1.729*)	0.067588 (1.554)
LogPGDP	2.476416 (7.385***)	0.640108 (2.325**)
LogP	5.939921 (3.666***)	6.141783 (3.365***)
LogER	-0.642195 (-3.356***)	-1.052382 (-3.934***)
FDI/GDP	-0.018263	0.001807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0.638)	(0.147)
INF	-0.002132 (-0.385)	-0.011366 (-4.695***)
AR(1)		0.899546 (28.670***)
R-squared	0.838237	0.969003
DW stat	0.37115	1.923272
모형 검증	F≈38.62>F(8,129) ≈1.98	F≈5.60>F(8,119) ≈2.03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괄호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또한 시기에 따라 중국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요인이 변화됨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전(1992년-1996년)과 외환위기 이후(1999년-2007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기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외환위기 전에는 양국과의 무역보완관계에 의해 투자가 영향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관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장규모 변수 중 외환위기 전에는 인구 수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나 나타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로는 초기 중국기업의 대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는 무역과의 보완관계에 의한 투자가 많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보완관계에 의한 투자보다는 현지시장 지향형 투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1인당 소득이나 인구 수 모두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환율변수의 영향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전기에는 현지국의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중국기업의 투자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후기에는 환율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도 무역과의 보완관계인가, 아니면 현지시장 지향형인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 변수 또한 똑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중국기업의 대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에서는 인플레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는 현지에서 생산요소 조달 현지생산-현지판매를 하는 경우 현지의 물가상승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표 7> 분석결과 (1992-1996, 1999-2007)

Variable	모형1(1992-1996)	모형2(1999-2007)
	Fixed Effect Model	Fixed Effect Model
LogTrade	0.689442 (2.066**)	0.117191 (1.237)
LogPGDP	0.020159 (0.032)	1.752978 (3.474***)
LogP	5.316474 (2.283**)	5.68129 (2.111**)
LogER	-2.177286 (-3.104***)	-0.286431 (-0.314)
FDI/GDP	0.042266 (1.180)	-0.009117 (-0.27)
INF	-0.056428 (-3.635***)	-0.003754 (-0.768)
R-squared	0.964208	0.848537
DW stat	1.910277	1.836602
모형 검증	F≈24.54>F(8,30) ≈2.27	F≈34.42>F(8,66) ≈2.07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각 변수의 괄호 안 수치는 t-값을 나타냄

FDI/GDP변수는 전체기간에 대한 분석이나 시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경제의 개방도가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는 미미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형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중 지역적 분포에서 아시아지역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국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기업의 ASEAN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ASEAN 각국에 대한 중국 투자에서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전에는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ASEAN 각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시장규모변수 중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기업의 대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는 현지국의 1인당 소득규모가 크고 또한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율변수와 인플레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설과 같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시기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외환위기 전에는 무역보완관계에 의해 투자가 영향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관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장규모 변수 중 외환위기 전에는 인구 수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나 나타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인당 GDP변수와 인구 수 변수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초기 중국기업의 대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는 무역과의 보완관계에 의한 투자가 많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무역보완관계에 의한 투자보다는 현지시장 지향형 투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1인당 소득이나 인구 수 모두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환율변수의 영향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FDI/GDP변수는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이나 시기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투지기업의 투자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양국 간의 경제적 보완관계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규모, 환율, 인플레 등의 요인에 의해 투자가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국내에서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역사기 길지 않고 또한 투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투자입지의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전통적 변수인 정책적 변수, 사회하부구조 변수, 문화적 변수 등의 자료가 입수 불가능하여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참 고 문 헌

구이현(2009), 한국과 대만의 대 중국 투자입지 결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위오기, 어윤대(1990), “환율변화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고려대학교, 제24권 제1호, pp.68-89

유재원(1996),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2권 제2호, pp.133-160

최백렬(2004), 해외투자론, 대경출판사

최백렬(2003),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실태분석 및 결정요인", 한국경영경제연구, 제3권 제2호. P.1~22

최백렬(200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동인 분석”, 한국경영경제연구, 제7권, pp.49-75

한병섭, 권종욱(2005), “FDI 기업의 투자입지 선호변화에 관한 실증연구-대중투자 제조법인 자회사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1호, pp.89-117

한병섭, 김병구(2008), “FDI 동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투자동기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 규명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2호, pp.23-47

徐康宁, 王劍(2002), "美國對華直接投資決定因素分析1983－2000", *中國社會科學*, 2002年第5期, p.66-77

劉建光(2007), “中國對外直接投資區位選擇實證分析", *商業現代化*, 2007年第28期, pp.28-33

朱艷 (2008), *中國企業在東盟直接投資的區位選擇問題*, 中國地質大學 碩士學位論文。

陳建勛(1994), “中國大陸外商直接投資區位選擇之實證分析", 中華經濟研究院,, *經濟專論* 150號, pp.23-38

魯明泓(1997), “外國直接投資區位分布与中國投資环境評估",*經濟研究*,1997年第12期, pp.37-44

Aliber R.Z.(1970),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P. Kindleberger(ed). *The International Corparation*, Cambridge. pp.17-34

Bagchi-Sen & Wheeler(1989), Bagchi-sen, S; Wheeler, J.O. (1989) “"A spatial and temporal model of foregi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Geography*, XX, pp.113-129

Blackboum, A,(1974) “The Spatial Behavior of American Firms in Western Europe", in *Spatial Perspective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F.E.I. Hamilton, ed., pp.245-264

Broadman, H.G. and X. Sun (1997), “The Dis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World Economy* [WEC], 20-3, pp. 339-361.

Culem, C.G.(1988), “The locational determinants of direct investment among industrialized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2 pp.885-904

Cushman D.O.(1988),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Review of World Economics*, 124(2), pp.322-336.

Haigh, R. (1990), "Selecting a US plant location: the management decision process in foreign companies",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Autumn, pp.22-31

Kang, Sung Jin and Hong Shik Lee(2007), "The determinants of location choice of South Korean FDI in Chin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ume 19, Issue 4, December 2007, pp.441-460

Kang, Sung Jin and Hong Shik Lee(2007),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 Korea and Japanese Companies", *Working Paper* 04-13, KIEP

Karimi, Mohammad sharif, Yusop, Zulkornain and Siong Hook(2009), *Location decis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A TOPSIS Approach)*, University Putra Malaysia, April 2009

Mundell. R.A.(1957), "International Trade and Factor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7, pp.321-335

OECD(1996), *The Link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 Empirical Evidence for US and French Industries*(1984-1994), DSTI/EAS/IND/WP9, 1996.5

Qian Sun, Wilson Tong, and Qiao Yu (200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1-1, pp.79-113

Scaperlanda, A.E. and Mauer, L.J.(1969),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558-568.

Swamidass, Paul M.(1990), "A Comparison of the Plant Location Strategies of Foreign and Domestic Manufacturers in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No. 2, pp. 310-316

Udomkerdmongkol, Manop, et. al.,(2008), *Exchange Rate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UNU-WIDER.

Woodward, D.P. & Robert J. Rolfe(1993), "The Location of Export-Orien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aribbean Basi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93) 24, 121 - 144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

A Study on the Location Decision of China's FDI in ASEAN

Baek-Ryu Choil* · Qing-Lei Meng**

Abstract

China's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has been concentrated on Asi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FDI locational determinants to ASEAN countri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GDP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population measuring market size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China's FDI. This implies that China's FDI headed for countries which had higher per capita income and more population. In addition, foreign exchange variables and inflation show negative correlations as we expected.

The analysis result by periods suggests that before the East Asia financial crisis, the investment is affected by complementary relations of the trade, while i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also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populatio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hile it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th of GDP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popul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raditional variables such as policy, social infrastructure and culture considered in related studies on locational determinants of the investment have not been investigated since there is no available data. The facts that the history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not long enough and the investment lacks its consistency require more various statistical tests.

Key Word : China, FDI, ASEAN, Lo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 IP: 203.254.***.111 | Accessed 2017/05/16 14:29(KST)